

브루지에 히가이 갤러리 서울 | 보도자료

필립 미쇼-뤼즈(Philippe Micheau-Ruiz) 개인전 《Healing Landscape》

전시기간 : 2021 년 3 월 11 일 (목) – 5 월 29 일 (토)

기자간담회 : 2021 년 3 월 11 일 (목), 오전 11 시

전시장소 : 브루지에 히가이 갤러리 서울,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99, 1 층

관람시간 : 화-토 | 오후 2-7 시 | 그 외 사전 예약

문의 : 02-3417-0900

Nature is a temple in which living columns sometimes emit confused words.

Man approaches it through forests of symbols, which observe him with familiar glances.

자연은 하나의 사원,

그곳에 살아 있는 기둥들이 때로 혼돈한 말을 새어 보내니,

사람은 친밀한 눈길로 그를 지켜보는 상징의 숲을 가로질러 그리로 들어간다.

- 샤를 보들레르, 『상응』 중

끝없이 수평으로 이어지는 자연 세계가 품은 경계를 우리는 지평선이라고 부른다.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그 선은 우리에게 자연의 선으로 추상화된다. 독일 철학자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Otto Friedrich Bollnow)는 저서 『인간과 공간』에서 지평선을 일컬어 인간이나 세계, 그 어느 곳에도 귀속되지 않는 동시에 양자를 포괄하는 영역으로 정의한다. 요컨대 인간은 결코 지평선에 다다르지 못하지만 그 지평선은 계속해서 인간을 따라 움직인다. 지평선은 칸트의 개념을 빌자면 인간이라는 '세계-내-존재'의 초월적 구성틀이며, 하이데거식 용어를 빌자면 인간적 관점의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허락한다.

지평선을 주제로 작업하는 필립 미쇼-뤼즈(Philippe Micheau-Ruiz)는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치유적 풍경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가의 개인전으로, 각각 독립적이면서 개념적으로 연결된 회화 작업들로 구성된다. 작가의 지평선 안에는 하늘, 땅, 공기, 불, 산, 자연과 같이 인간의 존재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지극히 자연적인 요소들이 스며 나온다. 그의 회화 작업은 먼 곳과 가까운 곳, 나타남과 사라짐, 영원성에 대한 시작점의 표상으로써 지평선을 표현한다.

전시장에 걸린 그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마치 창 밖으로 펼쳐질 듯한 넓고 푸르른 들판과 그 뒤에 저 멀리 보이는 산이 있다. 지평선은 반복적으로 느껴질 법도 하지만, 그 안에는 각각의 다른 풍경이 담겨있다.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인 겨울풍경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는 봄을 알리는 푸른 새싹이 피어난다. 이윽고 청명한 여름 하늘이 지나가면 이내 노을 빛 머금은 가을이 찾아오고, 또 그렇게 시린 겨울 공기에 하얀 입김을 내뿜는다. 어린 시절을 가족이 있는 스페인에서 보낸 작가는 시에라 데 그레도스(Sierra de Gredos; 스페인의 분수령으로 서부지역을 둘로 나누고 있는 산맥)의 푸르고 광활한

GALERIE BRUGIER-RIGAIL SEOUL – 갤러리 브루지에-히가이 서울

299, Jahamun-ro, Jongno-gu, Seoul, South Korea - 03021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99, 1 층

seoul@galerie-brugier-rigail.com | www.galerie-brugier-rigail.com | (02) 3417-0900

산을 기억한다. 그곳에서 느꼈던 기억 속 자연을 캔버스에 지평선의 형상으로 담는다. 아크릴과 운모(Mica)를 사용한 작품은 비춰지는 햇빛 (또는 조명)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화면을 비춘다. 어쩌면 정신분석가라는 작가의 또 다른 직업이 인간이 갖는 심리 상태를 화폭에 담아내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의 화폭에 몰입하는 우리에게 그것은 명상의 공간이 되기도, 우리 각자가 가진 풍경이 되기도 한다.

실로 지평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재하는 선도 아닌, 점도 아닌 그것은 대지와 하늘의 경계에서 오로지 우리가 일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게 필립 미쇼-뤼즈의 작품은 우리가 그간 무한하게만 여겨온 세계의 유한성과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을 다시금 진지하게 사유하게 한다.

PHILIPPE MICHEAU-RUIZ



프랑스 오를레앙에서 태어난 필립 미쇼-뤼즈(b. 1968)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과 인류학 석사과정을 마친 이후, 여러 석판화 아틀리에에서 수학하며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 카르나발레 미술관(musée Carnavalet)과 뷔띠 빨레(Petit Palais) 등 주요 미술관의 석판화 아틀리에에 속해 있기도 했다.

예술을 마음 속으로만 품고 있었던 작가는, 1999년 전업작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COSMIC 에이전시의 메세나에서 개최된 전시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게 소개하며 본격적으로 예술활동을 시작하였다. 작가는 회화, 사진, 영상과 설치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통하여 현재의 작업 방식에 이르렀으며, 지평선과 자연의 풍경을 주된 작업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파리와 온느를 오가며 작업하고 있다.



Philippe Micheau-Ruiz, Untitled (PMR21-04), 2021,
Acrylic and mica on canvas 캔버스에 아크릴과 운모, 33.5 x 41 cm

© Galerie Brugier-Rigail and the Artist



Philippe Micheau-Ruiz, Printemps (PMR21-08), 2021,
Acrylic and mica on wood 원목에 아크릴과 운모, 20 x 20 x 5 cm
© Galerie Brugier-Rigail and the Artist



Philippe Micheau-Ruiz, Untitled (PMR20-03), 2020,
Acrylic and mica on canvas 캔버스에 아크릴과 운모, 55 x 46 cm
© Galerie Brugier-Rigail and the Artist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는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미지는 홍보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갤러리와 사전 협의 없이 편집이 불가합니다.

고화질 이미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1drv.ms/u/s!Aml6NX1vevCP3xX1-xXn71Gq9Plp?e=kR40Qt>

GALERIE BRUGIER-RIGAIL SEOUL

오랜 시간 컬렉터로 활동하며, 프랑스 우수 기업들과 협업하고 예술적 안목을 인정받아온 에릭 브루지에(Eric Brugier)와 로헝 히가이(Laurent Rigail)는 보다 많은 사람들과 예술을 향유하고자 파트너십을 맺고 갤러리를 함께 열었다. 2001년, 파리 마레지구에 개관한 '브루지에-히가이 갤러리'는 프랑스 미술계에 '어반 아트'라는 장르를 소개하고, 다양한 동시대 미술 전시를 전문적으로 선보이는 갤러리로 자리매김했다.

'어반 아트'의 선구자이자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존원(JonOne), 존 마토스 크래쉬(John Matos Crash), 닉 워커(Nick Walker), 무슈 샬(M. Chat), 셰퍼드 페어리(Shepard Fairey), 라틀라스(L'Atlas), 세쓰(Seth)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파비앙 베르쉐르(Fabien Verschaere), 카트린 프리드릭스(Katrin Fridriks) 등 전세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는 컨템포러리 작가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매드씨(Mad C), 지알원(GR1) 등의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 및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19년에는 아시아 첫 분점을 서울에 개관하며, 한국 컬렉터 및 미술 애호가들에게 유럽 및 미국 아트씬을 망라하는 폭넓은 미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웅갤러리와 본화랑, 아트아리와 함께 자하문로 299 아트빌딩에 자리잡은 브루지에-히가이 갤러리 서울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무한한 잠재력과 역량을 지닌 작가를 엄선하여 소개해 나갈 예정이다. 갤러리 기획전 및 아트페어 참가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관과의 협업 및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소속 작가들의 국제적 저변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이로써 브루지에-히가이 갤러리는 파리와 서울 지점 간의 균형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작가와 동반 성장하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